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공 개방시설 공유누리 서비스 운영

정읍시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 개방시설 통합플랫폼 공유누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유누리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공공 개방시설 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방하는 시설과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공공자원 개방시설 실태 조사와 일체 정비 등을 통해 문화시설과 주차장 대여 물품 등 180개의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등록을 마쳤다.

특히, 해당 자원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자원 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등록해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일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7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19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쌀 가격 폭락으로 울हे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 이헌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심덕섭 고창군수, 해양수산부 차관 등 면담... 당위성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24일 해양수산부를 찾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과 송명달 해양정책실장,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을 면담하고 해수부가 공모 추진 중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고창군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초 해수부가 보전본부 공모설명회를 7월11일 개최하면서 공모 기준(안)이 공개되고 7월 22일까지 공모신청 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가 기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공모신청 공

문 발송이 지연되다 지난 16일 최종 공모계획이 전달됐다.

고창군은 설명회와 다르게 부지제공 면적기준 변경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신설 등 일부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평가시 공정성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울러 유산지역 중 유일하게 도보로 5km 이상 직접 나가 갯벌을 경험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고창 갯벌의 특성과 확장성을 가진 50만평의 사업대상 부지를 기 매입한 장점, 한국 내 갯벌의 중간지점 등 지리적으로 세계자연유산 관리에 효율적인 측면,

국립 생태시설이 전무한 전라북도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점 등 고창군에 유치해야 할 이유는 차고 남친다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심덕섭 군수는 "남은 기간 공모신청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고 고창군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여 반드시 고창군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양수산부가 여러 제반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주길 요청했다.

한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9월 말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중 최종 적합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3일 변산면 도청리 노을대교 사업예정지를 방문한 정운천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왕복 4차선 확장을 통한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주변경관 즐길 수 있는 교량"

권익현 부안군수-정운천 국회의원,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 '맞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3일 변산면 도청리 노을대교 사업예정지를 방문한 정운천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왕복 4차선 확장을 통한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의 이번 방문은 국민의 힘 전북도당이 예산시정을 앞두고 전북 중요 사업대상지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노을대교 건립이 왕복 2차로 신설로 계획되어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인근 지역에 충분한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행에 겸한 왕복 4차선 관광형 노을대교로 건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타 지역에는 헤더터널과 국제공방이 들어서는 동안 전북 서남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역의 영일이 담긴 노을대교가 4차선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익현 군수는 "노을대교 건립이 단순 통행목적에 넘어 주변을 찾는 관광객이 노을대교에서 노을 및 주변경관을 즐길 수 있는 교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을대교 건립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3870억원을 투입해 8.8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을대교가 건립되면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헤리면을 연결해 68km 거리가 7.5km로 줄어 현재 약 80분이 소요되는 통행시간을 10분으로 단축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추석 명절 선물 기획전 할인 대잔치

정읍시 단풍미인소핑몰, 9월 2일까지 한과·한우 등 우수농특산물 최대 50% 할인

정읍시가 운영하는 단풍미인소핑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절 선물 상품으로 인기 있는 한과와 떡, 한우, 쌀, 잡곡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중 신규회원가입 고객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3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10만원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는 1만 포인트를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단풍미인소핑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만족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고객에게 문자로 URL을 전송하고 설문에 응해준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소핑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단풍미인소핑몰에 입점한 상품은 지역 생산자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으며 품질과 포장 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다.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우체국 안전 배송 서비스로 무료 배송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단,

택배불량 증가와 주문 폭주 등으로 택배 지연과 조기품절이 있을 수 있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소핑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이나 고객센터 ☎063-535-43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구성했다"며 "단풍미인소핑몰에서 건강한 먹거리, 신뢰받는 제품 구매를 통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에 오픈한 단풍미인소핑몰은 124개 업체 920여 개의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김동원 전북대 총장, 한옥건축학과 정규과정 신설 논의

심덕섭 고창군수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전북대 한옥건축학과의 정규과정 편성을 본격 논의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23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가 전북대를 찾아 김동원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그간 계약학과로 운영중인 전북대 고창캠퍼스의 한옥건축기술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정규학과로 편성에 출 것을 요청했다.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사업단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한옥교육 시설을 구축해 취미·교양 목공교실부터 한옥건축기술전문인력 양성인 한옥대목수과정까지 대상



심덕섭 고창군수와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전북대 한옥건축학과의 정규과정 편성을 본격 논의했다.

앞서 고창군은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계약학과(농생명과학과, 한옥건축학과)를 운영하면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한옥건축학과 정규학과 편성을 통해 국내에서 한옥을 배우려 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군민의 학위취득 등 지역 인적자원 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대 고창캠퍼스에 한옥건축학과 정규과정이 신설됨으로써 한옥 건축의 맥을 잇고 신촌출하는 등 한옥의 세계화에 앞장서며 한옥 생산 시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간단·편리 '보조금24' 서비스 제공

부안군은 정부24 로그인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 보조금24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만 입력만 하면 우리 군으로 27개의 정부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중앙부처 25개, 지자체 314개의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및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민은 분야별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확인하거나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 24 접속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방문으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은 PC에서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정부24' 앱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이나 부안군 민원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